

원격진료·모바일헬스케어로 공보의 공백 해소 나선다

전남도, 보건지소 216곳 가운데 83곳 공보의 배치 안 돼 현재 88곳 영상으로 진료·약 처방 가능...전체 확대 예정

섬과 오지가 곳곳에 산재한 전남도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원격진료와 모바일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공백해소에 나섰다. 도내 261곳 가운데 83곳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전남도는 순회진료와 함께 이들 대책들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오지의 만성질환환자 관리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환자는 타 보건기관 공보의와 영상으로 진료를 받고, 환자 소재 보건지소에서는 약까지 처방 받고 있다. 현재 88개 보건지소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향후 전체 보건

지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는 AI(인공지능) 영상진단 보조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학과 전문의 배치가 어려운 보건기관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인공지능플랫폼 활용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보건기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불균형 해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

리 서비스를 17개 시군의 4461명에게 제공중이다. 이는 환자의 휴대전화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각종 디바이스 즉, 손목시계형 활동량 측정기, 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건강정보를 클라우드로 수집하고 이를 자료로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보건지소의 역할도 현재 진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의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5G 등의 핵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과 보건의료의 융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군보건소 비대면진료 모습.

<전남도 제공>

'아트광주24' 개막...96개 갤러리 참여 '역대 최대'

키스 해링·이우환 작품 등

호남권 최대 미술시장(아트페어)인 '아트광주24'가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이탈리아·프랑스 등 해외 10곳을 포함한 갤러리 96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 축제'를 주제로 106개 부스에서 컬렉션을 선보이고 특별전 7개 부스, 갤러리 등도 펼쳐진다.

특별전인 '컬렉션 프로젝트'에서는 현대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가인 키스 해링의 '무제(Untitled)', 쿠사마 야요이의 '과일', 이우환의 '조용' 등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뛰어난 지역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다이징 스타전'도 새롭게 마련됐다.

근대 미술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VIP 특별전인 PSR 프로그램과 컬렉터·작가·갤러리가 문화적 교감을 나누는 갤러리네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여 특별함을 더한다.

미술 소품과 도서 등을 판매하는 아트숍과 아트



키스 해링 '무제'

<광주시 제공>

채널, 퍼블릭 존을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 축제를 표방한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이며 광주비엔날레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광주24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트광주가 2010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15회째를 맞으며 광주의 대표 미술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국내외 미술시장을 조망하고 미술계의 성장을 도모하는 허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립수목원서 '하이, 푸룻마켓' 개최

내일 제품 판매·체험 등 다양

광주시는 "12일 남구 양과동 광주시립수목원에서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이, 푸룻마켓'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하이, 푸룻마켓'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유관기관 등 40여곳이 참여하며, 감정요일 테라피와 무등산 수박 탄산수, 편백 가습기, 수공예 제품, 유기농 먹거리 등 200여종의 이이에스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또 커피박 화분 만들기과 반려 식물 테라리움 체험, 친환경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비눗방울 공연, 풍선쇼, 민속놀이 게임 등 무료 공연과 레크리에이션도 준비돼 있다.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면 피크닉 매트를 증정(선착순 500명)하고, 2만원 이상 현장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로 슈링클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센터 기업성장팀(062-531-6667-8)으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공공기관 드론 방호망 구축 나서

토론회서 민·관·군 협력 나주 지역 드론 방어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한전·전력거래소 등 국가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한 나주 지역에 민간 불법 드론 침범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민·관·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전남도는 10일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원 다목적홀에서 '나주권역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방호 강화 필요성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다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도,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 제 31보병사단, 한전,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공격의 위험과 대응 기술 동향(이병석 경찰대 경찰학과장) ▲도내 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비 필요성(백준순 광주대 국가안보재난대테러연구소장) ▲한전 대드론 구축 성과와 향후 추진사항(조원영 한전 비상계획실장)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 기관별 드론 방어 준비상황과 계획, 나주권역 대드론 방어체계 공동 구축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계기로 나주권역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민·관·군이 협력을 강화해 드론 테러 안전지대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지질공원' 무등산 경관 보며 달려요"

광주시, 13일 '지오마라톤대회'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3일 화순·담양군 일원에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6주년을 기념하는 '제3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187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며, 13일 오전 7시40분 금호화순리조트 앞 공용주차장을 출발해 화순군 백이면 수리1교를 지나 담양군 가사문학면 인삼삼거리에서 반환한 뒤 금호화순리조트로 돌아오는 코스를 뒀다.

이번 대회에는 윤여준 대한육상연맹부회장

마라톤 인플루언서 김동욱씨 등도 참가하며, 유튜브를 통해 3시간 생중계한다.

또 행사장 내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화순 북면 서유리 공동화석지를 모티브(동기)로 제작한 공동발자국 모형 방향제 기념품과 2025년 무등산권 지질명소 탐상 달력 등도 배부한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알리는 이색 마라톤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